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 5. 15.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전 세계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이 5월 15일(수),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글 받아쓰기 실력을 겨룬다고 밝혔다.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주최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와 (재)한글누리가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한글날(10. 9.)에 개최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우리 고유의 문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대회 참가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대학과 어학당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이번 대회의 사회는 문체부가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 한국방송공사의 김승휘, 엄지인 아나운서가 맡는다. 1등(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 원을, 2등(5명)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각 1백만 원을, 3등(5명)에게는 재단법인 한글누리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전 세계 유학생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 국민들도 외국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진 (044-203-2531)
		담당자	사무관	정아봉 (044-203-2534)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책임자	과장	이은영 (02-2669-9731)
		담당자	학예연구관	황용주 (02-2669-974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KBS  주관  재단법인 한글누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	24	년	
외	국	인	
받	아	쓰	기
대	회		



“
627돌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생일,
5월 15일에 여러분의 한글 실력을 맘껏 뽐내 보세요.

- 날짜/장소** 2024년 5월 15일(수),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 신청 자격** 국내 대학 또는 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5일(월)~4월 26일(금)
- 결과 발표** 5월 1일(개별 연락)
- 문의** 대회 사무국: 02-6346-9994



상금과 상품 2,000만원